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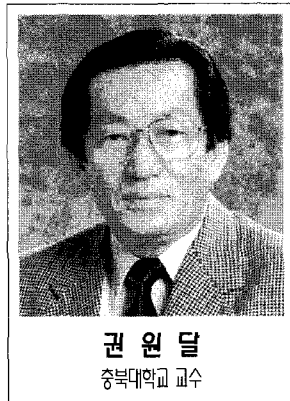


## 변화되는 농업구조

농가가구수와 농촌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우리나라 농촌도 동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95년말 현재 총농가수는 1백49만9천호로 전년에 비해 5만9천호가 줄었다. 농가인구도 4백83만8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32만9천명이 감소하여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다.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중은 10.8%로 전체인구의 1할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는 선진국인 일본의 10.2%수준과 비슷한 것이며 2000

# 우리 농촌경제의 실상



권 원 달  
충북대학교 교수

년에는 8%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가인구의 구성을 보면 50세이상 농가인구가 전체의 43.8%나 된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전체의 49.0%, 여자가 51.0%로 노동능력이 적은 노인과 부녀자들이 많아서 노동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농촌의 어떤 곳은 아이울음소리가 끊어져서 정말 심각한 곳으로 변하고 있다. 어떤 마을은 40대가 가장 젊은 층으로 대표되는 곳도 있다.

최근 농가와 농가인구의 감소는 대내외적인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요약하면 농촌지역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취업기회의 확대, 대규모 경영농가의 기계화에 따른 상대적 인구감소,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취학자녀의 도시로 진학, 농촌환경 열악화와 막연한 도시로의 이주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1할의 농민이 9할의 인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생산해야하는 실정이다.

농경지도 매년 평균 2만4천7백ha가 줄어들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건물건축, 공공시설, 공원 등 타용도로 전환되는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용되지 않는 유휴농지도 늘어나고 있다.

95년말 총경지면적은 1백98만5천ha이다. 이중 논은 1백20만6천ha로 전년에 비해 6만1천ha가 감소하였고 밭은 77만9천ha로 전년에 비해 1만4천ha가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건물건축, 공공시설, 기타사유로 6만3천ha가 감소되었고 개발·간척·복구에 의해 1만5천ha가 증가하였다.

전체 경지이용면적은 2백19만7천ha로 전년에 비해 8천ha가 감소되었고 경지이용률도 108.1%로 결코 높지 않다. 경지이용면적이 감소한 것은 식량작물이 5만7천ha가 감소한 대신 채소·과수등 경제작물은 4만9천ha가 증가하였음에도 휴경면적이 6만

4천ha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좁은 경지마저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1천3백54ha에 이른다.

### 향상되는 농가경제

95년도 농가호당 평균소득은 2천1백80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7.8% 증가하였다. 이중 농업소득은 68.2%인 1천46만9천원이었으며 농외소득은 전체의 31.8%인 6백93만1천원이었다. 농외소득중 피증보조 즉, 출타가족에 의한 송금보조, 피증보조 등은 4백40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5.7%나 증가하였다.

경지구묘별 농가소득을 보면 1.0ha이하 농가는 평균소득의 85%였고 2.0ha이상은 평균소득의 1.4배나 되었다. 그러나 농외

소득은 0.5ha미만은 평균농외소득의 53%, 2.0ha 농가는 18% 수준이었다.

지대별로 농가소득은 도시근교, 평야, 중간지대는 평균보다 높고 산간지역은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농외소득은 도시근교가 가장 높았고 산간지역이 낮았다.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1천46만9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4%증가했다. 농업소득은 농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공제한 것인데, 최근 조수입도 늘어나고 있지만 농업경영비가 계속 증가되는 실정이다.

95년의 농가호당 평균 농업조수입은 전년에 비해 4.3%가 증가한 1천6백1만2천원으로 주로 미곡, 축산, 채소, 과수, 특용작물 순으로 되어있다. 채소와 과실류는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1년에 사용한 호당평균 가계비는 1천4백78만2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0.9% 상승하였다. 내용별로는 음식물비와 관혼상제비는 성장이 둔화되고 교육, 교양, 오락, 보건의료비, 교제증여비, 교통통신비 등은 증가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특이한 현상은 가계비중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 즉, 엔겔계수는 21.1%로 전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농가가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중에서 가계비가 차지하는 평균소비성향은 68.3%로서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농가자산은 호당평균 1억5천8백17만1천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다. 이중 토지, 건물, 대농구, 대동식물 등 고정자산은 1억3천4백33만4천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소동물, 채고농산물 등 유동자산은 4백9만8천원으로 증가율이 낮다. 한편 현금, 예금, 대부금등 유통자산은 1천9백73만9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7%나 증가되었다.

95년도 호당평균 농가부채는 9백16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6%나 늘어났다. 용도별 농가부채를 보면 토지, 건물, 대농기계 등 생산성부채, 즉 영농활동을 위한 부채가 증가하여 전체의 80%인 7백33만1천원이었다. 생활비, 교육비, 관혼상제비 등 가계성부채는 전체의 12.1%인 1

백11만원으로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

농가부채를 차입처별로 보면 농협등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비율은 전체의 91.3%였는데 개인차입이 8.7%로 특히 농협에서 주로 차입하였다. 부채규모별로 보면 부채없는 농가는 전체의 19.5%이며 80%가 부채있는 농가이다. 3천만원이상의 고액부채가 있는 농가도 8.8%나 되었다.

### 개선되지 않는 교역조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용품구입가격지수를 비교해 보면 계속 농가에 유리하지 않다. 90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95년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5.6이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32.6으로 농가교역조건은 102.3이나 실제 농가에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과실, 곡물, 축산물 판매가격이 불안정한 반면에 농업용품중 가축, 비료, 사료, 자재, 농촌 노임 등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농산물가져 불안정과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가수지를 개선하지 못하였으며 수입농산물이 증가하여 더욱 악화되었다.

반면 농가구입가격은 송아지등 가축류 가격상승과 가계용품 가격 상승 및 농업자재, 종자, 농기구류 등의 가격상승으로 농가부

가격이 불안정하여 소득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농업경영비는 5백54만3천원으로 양축비, 임차료, 농구비, 노임, 농약비 순으로 되어있으며 전년에 비해 10.4%나 증가하였다. 특히 농기계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경상수리비 증가 및 노임, 임차료, 비료, 사료비가 상승되었다.

농가의 호당평균 농외소득은 6백93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되었다. 주로 겸업수입중 상업과 서비스, 노임 등이 증가하였다. 경지규모별로 농외소득은 경지규모가 적은 농가가 많았다.

담을 증가시켰으며 농촌노임상승이 높아져서 농가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다. 특히 유통구조와 기능이 정착되지 못하여 판매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거래과정에서 손실을 보고있다. 농산물도 점차 품질개선과 상품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거래교섭력이 떨어지고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구입용품은 가계용품이나 농업용품이 대부분 독과점상품이고 가격결정과 유통과정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구입과정에 불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과정에서 농산물판매과정 이 보다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농산물의 품질도 안전하고 선별, 등급, 포장 등 상품성이 높아서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생산 유통되도록 적극적인 영농활동이 필요하다.

### 증가되는 문화시설

농촌의 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 생활의 공간으로서 농촌도 점차 좋아지고 있으며 삶의 질도 나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촌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은 물론 병원, 극장, 학교, 문화시설도 절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도시지

역과 비교하면 농촌은 아직도 취약한 것이 명확한 사실이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투자규모도 늘어나서 농촌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최근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민이 늘어나면서 복지시설이 확충되고 있다.

개별 농가도 농가편의용품이 크게 보급되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고 있다. 컬러텔레비전, 냉장고, 전화, 가스렌지는 거의 모든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 95년 현재 100호당 편의용품 보급현황을 보면 컬러텔레비전 133대, 세탁기 81대, 냉장고 109대, 전화 99대, 가스렌지 102대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3가구당 1대, 컴퓨터도 100호당 12대를 보유하고 있어 거의 도시가구를 따라 가고 있다. 동력농기계와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어나면서 농가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생활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농가편의용품 보유농가가 늘어나면서 지출증대는 물론 각종 생활형태가 도시적이고 근대화되면서 전통적 관습이 사라지고 있다. 고유의 미풍양속이 자취를 감추고 모든 생활의 기준이 경제적 가치로 귀결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농촌경제는 상대적으로는 뒤떨어지고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좋아지고 있으며 삶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 농약정보

